보도시점 2024. 1. 16.(화) 15:00 (2024. 1. 17.(수) 조간)

「부담 없는 육아, 모두 편한 일터」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 방안을 모색하다

- 이정식 장관, 일.육아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16일**(화) 15시에 아주약품(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초저출생 시대에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기업과 근로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아주약품(대표 김태훈)은 전문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는 **의약품 제조기업**으로,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이외에도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근로자들의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출산·육아기에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육아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육아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휴직기간의 소득보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사용**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사업주**들은 육아지원제도 활용 시 **업무공백 및 대체인력 수급 문제**를 제기하며,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기업규모에 상관없는 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동반 상승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여건 조성**과 **남성의 돌봄 참여 확대**가 전제조건"이라며,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육아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며 "**육아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말씀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정숙 (044-202-7470)
		담당자	서기관	편해윤 (044-202-7473)

붙임1 **간담회 개요**

1 일시/장소

○ **일 시:** ’24.1.16.(화) 15:00~16:30(90분)

○ **장 소:** 아주약품 5층 간담회장(구로역 인근)

○ **참 석 자: 총 15명 내외**

▲ **(정부)** 장관, 통합고용정책관, 청년보좌역 등

▲ **(근로자)** 육아지원제도 사용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4명

* 아주약품 소속 근로자 2명, 인근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2명

▲ **(사업주)** 육아친화적인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관리자 4명

* 아주약품, ㈜리치바이오, ㈜엠에이치앤코, 한국후지필름

▲ **(전문가)** 정성미 박사(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세부일정 ※행사 전체 공개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5:00~15:05	(5’)	■ **사업장 순시**	사업주 안내
15:05~15:07	(2’)	■ **간담회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청년보좌역
15:07~15:10	(3’)	■ **인사 말씀**	장관
15:10~16:25	(75’)	■ **자유 토론**	
16:25~16:28	(3’)	■ **마무리 말씀**	장관
16:28~16:30	(2’)	■ **폐회 및 기념사진 촬영**	청년보좌역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말씀**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 새해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계획하신 일을 이루고,
청룡처럼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방문을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간담회 자리도 마련해 주신
김태훈 아주약품 대표님,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저출생 문제의 완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육아 지원 등 모성보호제도의 확충과
육아·가사에 대한 맞돌봄 문화 정착 등으로
일하는 여성이 많아질수록
출산율도 동반 상승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지원제도를 지속 확대해 왔으나,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득은 줄어듭니다.
게다가 제도가 있어도 사내 눈치로 사용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특히 남성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활용률이 낮은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근로자분들은 제도사용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이나
정부나 기업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기업에서는 제도 도입시 애로사항이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가감없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의견을 잘 듣고
신속히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함께 걱정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